

지난 주일 설교

사도행전강해 29“한밤의 노래”(사도행전 16:19~25)

- 복음이 빌립보를 향하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성이란 의미입니다. (16:12) 빌립보 도시는 로마가 야만인들이 살던 곳을 점령하여 퇴역 장교들을 정착시켜 만든 도시였습니다. 리를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의 정신과 질서를 가장 잘 드러내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 처소를 구하려다가 뜻 밖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6:14) 루디아는 ‘리디아에서 흘러 들어온 여인’이란 뜻입니다. 리디아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아시아의 길은 막혔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유럽에서 만난 첫 사람이 아시아 여자였습니다. 그는 여자였고, 장사꾼이었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로마의 중심부로 불릴만한 빌립보에서 하찮아 보이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 복음을 불씨를 지퍼나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묘한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 바울은 고난 속에서 어둠에 눌린 영혼들을 보고,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어야 함을 보게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중 귀신 들려 점 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16)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온전히 고쳤습니다. (16:17,18) 이 일로 주인은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대노하였고,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19)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장터”는 당시 경제와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대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연설하던 아고라 광장을 뜻합니다. “관리”는 계급에 따라 끝에 부착물이 달린 방망이를 차고 다니면서 즉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많이 맞은 후에 차고에 차인 채 혼잡범들만이 가는 하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22,23)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은 컸을 것입니다. 바울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 바울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였습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16:25) 여기서 “들더라”는 표현은 깊은 경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절박할 때 하는 것이고, 찬송은 형통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니는 기도하다가 자기의 절박한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하여 부끄러웠을 때, 자신의 환난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음을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각자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곤고함을 겪게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숨겨 놓으십니다. 바울도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식이 열리자,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성도의 삶은 이익/손해라는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라 한다**

바울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6:28)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전2:2) 바울 안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경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갈 수만 있다면, 박해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후12:10) 이것이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4:13) 우리의 삶도 세상적인 이익/손해라는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도시 빌립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도시가 가지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 바울의 고난은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며, 찬송을 올려 봅시다.**
- 바울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 바울은 이익/손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되자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빌4:13) 여러분 인생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 인생의 기준선을 두게 될 때, 어떤 영적인 만족이 있을지 고백해 봅시다.**

